주님 세례 축일 강론(2020년 1월 12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여러분 새해 떡국 다 드셨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새해 만 되면 꼭 떡국을 챙겨 먹어요. 근데,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음식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죠? 모르세요?

떡국은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암, 골다공증, 치매, 노인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헉… 국내외 연구진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주요 원인은 떡국을 먹게 되면, 사람이 …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ㅋㅋㅋ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떡국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새해도 되었으니까 떡국 먹자.” 그래서, 떡국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었어요.

벌써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5분, 5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인생 마지막으로 딱 5분이 주어진다면 과연 그 마지막 5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단 5분정도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28년 인생을 살아 오면서 주어진 마지막 5분. 그 5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5분을 과연 어떻게 쓸까?

겁에 질려 있는 옆 사형수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약 2분 정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 보는데 약 2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 1분 정도는 하늘과 주변 자연을 마지막으로 둘러 보는데 쓰기로 합니다.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는데 벌써 2분 정도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돌이켜 보려는 순간, ‘앞으로 3분 정도 후면 내 인생도 끝이 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 앞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8년의 세월을 보다 보람되고 의미있게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정말 정말 매 순간을 아껴 쓰련만, 이제는 내 인생도 끝이구나’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거짓말같이 기적적으로 그 사형수는 풀려납니다. 무죄가 선언이 된 거죠. 이런 극적인 순간이 또 있을까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에 버금가는 19세기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죠. 도스토예프스키.

한때는 러시아 개혁 운동에 가담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한 5분쯤 전에 극적으로 무죄가 선언되고 석방됩니다.

그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 순간 느꼈던 시간의 소중함을, 딱 5분의 소중함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형 직전까지 갔었던 그 무시무시 했던 경험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래동안 깊이 새겨졌고, 후에 그의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주 위대한 소설이죠.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 그가 남긴 최고의 말 한마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세월이 너무 빨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5분을 소중하고 의미있게 보낸다면, 그 5분, 5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소중하고 의미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세례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세상에 밝혀지고, 그리고 이 세례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과 운명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구세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 핵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경축했습니다. 2주 쯤 전이었죠. 예수님 성탄 대축일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탄생으로 인간은 비로소 죄와 어둠을 이기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먼 이국땅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것을 기념한 축일이 바로 지난주 공현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시작으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공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사명에 전환점이 되죠. 나자렛에서 조용히 삼십년 정도를 지내시다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구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당시 요르단 강에는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수백명, 아니면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 외칩니다.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회개의 표시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듭니다.

지금도 요르단 강은 완전 흙탕물입니다. 진흙 뻘이 바닥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강물이 황토색을 띄는 진흙탕 물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완전 흙탕물. 그 흙탕물 속에 몸을 담그고, 다른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차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흙탕물 안에는, 세상의 온갖 죄인들이 다 몰려와 있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죄 많고, 세상의 온갖 아픔과 불행을 등에 진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혹시 구원될지도 모른다는 한가지 희망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런 더러운 흙탕물에 몸을 담그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죠. 당시 그들은 스스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하느님 앞에서 한점 부끄럼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될 거라는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갔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멀찍이 나무 그늘 밑에 모여 서서 무슨 일인가 구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아무 부끄럼 없이 그 강물에, 그 흙탕물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라는 사실, 하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로 얼룩진 인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들과 똑같이 되셨고, 우리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늘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퍼집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인식을 시작으로, 공생활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느님의 아들’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삶과 운명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받은 세례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모두 세례를 받을때, 하늘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퍼졌을 겁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평생 살아가는 사명과 운명을 결정했듯이,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과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스런 자녀들의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운명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그 사명에 맞게, 또 그런 운명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그리고 우리의 세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요르단 강가에서 울려퍼진 하느님의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도 깊이 울려 퍼기고ㅖ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